

|       |                          |             |     |         |
|-------|--------------------------|-------------|-----|---------|
| 파견 기간 | 2023 Fall                |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 학 번 | -       |
| 파견 국가 | 미국                       |             | 소 속 | 건설환경공학부 |
| 파견 대학 | University of Washington |             | 성 명 | 김도영     |

##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저에게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적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영어 교육만 경험했기 때문에, 꼭 한번은 영어권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식 영어를 체득하고 싶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집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게 외국에 거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시애틀은 비가 자주 내리는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지냈던 가을~초겨울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비가 내렸지만, 봄~초가을에는 화창한 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Starbucks가 처음 생긴 곳이라 Starbucks 매장이 정말 많고, 실리콘 벨리 다음가는 미국의 IT 허브로 Amazon과 Microsoft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UW은 건물과 조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그림 같은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상징색은 보라색과 황금색이고, 마스코트는 허스키입니다. (UW 팀이 참여하는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가면 실제 살아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 College Football Playoff National Championship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뛰어난 실력의 football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football 경기장이 있으며, DAWG pass를 구매하면 파견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football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행정적인 절차는 DS-2019 수령, Sevis Fee 납부, 비자 인터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메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할 일들을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자 인터뷰는 미리 예약하고 가는 시스템이라 마감일에 닥쳐서 하면 가능한 날이 다 차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긴급 요청'이라는 대책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 홈스테이에 관심이 있다면, FIUTS가 주관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FIUTS는 UW의 국제학생들이 현지 및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기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홈스테이는 국제학생과 시애틀 현지 가족을 n:1로 매칭하여 개강 전 7~10일 동안 현지 가족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IUTS 측에서 최대한 모든 학

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지만 만에 하나 매칭 가능한 현지 가족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IV. 학업

### 1. 수강과목 설명

- **Fisrt-Year Chinese for Non-Heritage Learners (CHIN 101)**: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입니다. 중국어의 경우, 중국 출신의 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수업이 주 5일이라 단기간에 언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1은 HSK 1~2급 수준으로 저는 더 높은 수준을 원했으나, 가을 quarter에는 101만 개설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만약 언어 수업 수강을 고려중이고 두 quarter 이상 파견된다면, 여러 quarter에 걸쳐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며 언어 수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UW의 언어 수업은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Biopsychology (PSYCH 202)**: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뇌에 대해 배우는 교양 수업으로,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개론'을 수강했다면 선이수 교과목 조건을 충족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각, 수면, 기억, 감정과 관련해 뇌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활동 및 반응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심리학을 기대하고 수강 신청했는데 실제 수업 내용은 생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생물학 용어에 익숙해지면 내용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Introduction to Database Systems (CSE 414)**: CSE의 non-major 수업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율적인 데이터 적재, 검색,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query 언어(SQL), schema 설계, transactions, NoSQL 등을 적절한 실습과 함께 배웁니다. 교수님의 강의력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실습 과제를 7번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Microsoft에서 만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Azure을 토대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CSE 416)**: CSE의 non-major 수업으로, 머신러닝의 핵심 분야를 다룹니다. non-major 수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python 경험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수학적 원리보다는 직관적 이해와 실제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원마다 quiz와 실습 과제가 있는데, 실습은 Colab 환경에서 python으로 진행되고 충분한 양의 skeleton code가 제공됩니다.

### 2. 기타 유용한 정보

수업 번호가 200을 넘어가면 선이수 교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환학생은 이런 수업을 전산 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지만, 해당 학과/단과대 행정실에 선이수 교과목과 유사한 수업을 서울대학교에서 수강했음을 인증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학과/단과대 행정실에서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담당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강 신청이 승인되면 수강 신청에 필요한 번호를 받아볼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 V. 생활

### 1. 주거

주거 형태는 크게 On-campus와 Off-campus로 나뉩니다. On-campus는 1~3인이 한 방을 공유하는 기숙사 타입과, 4~6인이 각방을 쓰고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아파트 타입이 있습니다. 두 타입은 West campus와 North campus에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West campus는 대체로 신식 건물이고 대학가(이하 'Ave')와 가까운 반면, 학교 체육 시설인 IMA까지 가려면 2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IMA 대신 Elm hall 1층에 위치한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rth campus는 대체로 구식 건물이고 Ave와 멀지만, IMA와 가깝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두 campus 모두 대부분의 학교 건물까지 걸어서 15분 내외로 걸립니다.

Off-campus는 학교 근처의 집을 개인적으로 계약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동거인을 구하는 메일이 오는데, 운이 좋으면 On-campus보다 저렴한 금액의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Ave의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라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On-campus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식사 및 편의시설

미국 물가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tax, tip 포함 평균 \$15 이상이 나옵니다. Off-campus에 거주하면, H-mart에서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먹으면서 식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On-campus 중에서도 기숙사 타입에 배정받으면 최소 약 1,000\$의 Dining plan을 구매해야 합니다. Dining plan은 교내 cafeteria, cafe, market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리 도구와 냉장고가 없어서 앉은 자리에서 먹어 없어지는 한 끼 식사나 소량의 간식만 구매했는데, 만약 여건이 된다면 식재료를 쟁여두고 직접 요리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타입은 보통 층별로 주방 공간이 1개씩 있지만, hall 전체에 주방 공간이 1개인 곳도 있으니 기숙사 타입 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저는 West campus에 거주했어서 주로 Lander hall 1층 cafeteria에서 식사했고, 이탈리아 클럽 샌드위치, 클래식 버거, 피자 등을 즐겨 먹었습니다. 가끔 외식이 하고 싶을 땐 Ave 식당을 찾았는데, 아래는 제가 방문했던 식당 중 추천하는 곳의 리스트입니다.

- Korean Tofu House: 한식이 그리울 때 가면 됩니다. 꼭 지하에 있는 곳으로 가세요.
- Little Thai
- Sizzle&Crunch Vietnamese Grill: 가성비가 매우 훌륭합니다.
- Cafe on the Ave: 베이컨 김치볶음밥 맛집.
- Bugis: 퓨전 아시아 음식점. 치즈 떡볶이가 꽤 괜찮습니다.
- Nasai Teriyaki
- YangGuoFu YGF MalaTang: 한국의 마라탕 맛은 아니지만 매운 맛이 땡길 때 가면 좋습니다.
- Hiroshi's Poke: 재료를 직접 고르는 포케 집. 가성비가 좋습니다.
- Sweet Alchemy Ice Creamery: 유리병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디저트 가게. London Fog를 꼭 시도해보세요.

### 3. 가져가면 좋은/안 좋은 물품

- 모자 있고 방수되는 외투: 시애틀은 가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모자 있고 방수되는 외투를 1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가끔 굵은 비도 내리는데, 현지인들은 이런 비도 맞고 다니지만 저는 깨끗하게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만큼 눈치 보이지 않습니다.
- 보조 배터리: 미국 여행은 이동 시간이 길고 간혹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여행이 그렇듯 실외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블루투스 헤드셋: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니지만, 저는 헤드셋을 끼고 팝송을 들으며 미국 거리를 거니는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은 것을 가장 크게 후회했습니다.
-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는 전압 차이로 인해 세기가 많이 약해지니 현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데기의 경우, 저는 앞머리 용 미니고데기를 가져갔었는데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 4. 기타 유용한 정보

가능하다면 roommate/homemate와 생활규칙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같이 사는 현지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문화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에 이성 친구를 들이는 것,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 등은 미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미국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호텔(하우스키핑 팁)이나 현금만 받는 음식점에서 약간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 계획이라면 항공기 수화물 규정 상 대형 캐리어 1개에 평균 30\$ 이상의 추가비용이 부과되니 carry-on 가능한 캐리어를 소지하는 것이 여행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iPhone, AirPods과 iPad, MacBook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여행기간 동안 Apple 전자기기 분실에 대비하여 '나의 찾기'를 켜두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잃어버린 iPhone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들었던 두렵고 막막한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마주했더니 어느덧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대학을 경험하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대로 영어를 익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부터 시작해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여행, 그리고 귀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국제협력본부와 공과대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